

‘4男 8子’의 순서에 관한 고찰

정 압(염중섭, 동국대학교 강사)

I. 序論

붓다가 성도 후 카필라로 귀향했을 때 석가족의 귀족들이 출가하게 되는 데, 이때 주축이 되는 것은 붓다의 부계 사촌들이었다. 이 시기에 출가하게 되는 인물들 중 발제는 당시 석가족의 Rāja였고, 아나올과 아난은 후일 『유마경』 「弟子品」에 10대 제자로 나타나 보이는 불교교단의 중요한 인물들이다.¹⁾ 그리고 제바달다 역시 破僧伽의 주역으로서 문제가 많은 인물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불교교단의 최초기 양상을 파악함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인물이다.

붓다의 사촌들이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가족의 가계에 있어서 이들의 위치는 매우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어 이의 명확한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붓다와 난타를 위시로 하는 석가족의 ‘8子’와 이들의 부친이 되는 ‘4男’에 관한 정리는 붓다와 근본불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필연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본 고찰은 1차적으로 붓다의 가계를 ‘4남 8자’의 형식으로 정리하고 있는 북전의 13종 문헌들을 기반으로 하였다. 그러나 13종의 문헌들만으로는 다소 모순되고 혼란스러운 양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여기에서 부족

1) 鳩摩羅什 譯, 『維摩詰所說經』 上, 「弟子品第三」(『大正藏』 14, 539c-544a).

한 부분들에 대한 측면들을 율장과 아함 등의 전적들에서 단편적으로 살펴질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보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서 우리는 붓다와 근본불교의 이해에 있어서 보다 명확한 측면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이와 아울러 관련 사건들에 있어서의 한층 더 풍부한 입각점을 구성해 볼 수가 있는 개연성을 획득하게 된다고 하겠다.

II. 4남 8자의 관련전적 검토

붓다의 가계와 관련된 전적들은 붓다를 포함한 7대에 걸친 가계를 언급하고 있다. 이를 『五分律』 권15를 통해서 고찰해 보면, 각각 ①鬱摩 → ②尼樓 → ③象頭羅 → ④瞿頭羅 → ⑤尼休羅 → ⑥淨飯 → ⑦菩薩이며,²⁾ 『불본행집경』 권5에서는 ①甘蔗(善生王·日種王) → ②尼拘羅·別成 → ③拘盧 → ④瞿拘盧 → ⑤師子頰 → ⑥閼頭檀 → ⑦悉達로 나타나 있다.³⁾ 이는 석가족의 가계를 7대 종성의 논리에서 기록하고 있는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붓다의 조부인 사자협의 밑으로는 4남, 혹은 4남 여식이 존재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이들 4남은 다시금 각기 2남, 혹은 2남 여식을 두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붓다의 가계에 관한 전적들이 기록될 당시의 인도는 철저히 남성위주의 사회였다고 할 수 있는데,⁴⁾ 이는 여성들에 관한 출입의 폭이 같이 언급되고

2) 佛陀什·竺道生 等譯, 『五分律』 15, 「第三分初受戒法上」(『大正藏』 22, 101a·b).

3) 闍那崛多 譯, 『佛本行集經』 5, 「賢劫王種品下」(『大正藏』 3, 674b-676a); 『佛本行集經』 11, 「姨母養育品第十」(『大正藏』 3, 701c).

4) 붓다 당시는 아직 母系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자주 눈에 띈다. 예컨대舍利子나 富樓那彌多羅尼子和 같은 경우 이는 각각 舍利와 彌多羅라는 여인의 子息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불전에서 붓다의 家系가 정리되어 기술되는 것은 기원후이므로 이때는 母系가 완전히 사라지고 철저히 남성위주의 사회가 이루어진 시기라고 하겠다.

있는 남성들에 비해서 훨씬 큰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보다 분명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남성을 위주로 고찰해 보면, 조부 밑으로 4男과 다시금 그 밑으로 8男이 존재하게 된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8남은 소위 ‘8子’로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4남 8자에 대한 율장과 불전의 정리

붓다의 조부인 사자협 이상의 조상들에 대해서는 석가족 및 가비라국의 발생과 관련된 전설적 요소가 다수 함유되어 있어서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사자협 of 자제인 4남의 내용부터는 붓다와 직결되는 측면이 있으며, 또한 4남의 자제인 8자들 중 상당수는 후일 승단에 출가하여 붓다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초기교단의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이들의 가계적 위치에 관한 정확한 모색은 필연적인 당위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4남 8자에 대한 측면들은 붓다의 가계를 언급하고 있는 전적들에 있어서 심한 편차를 나타내 보이고 있으므로 이의 명확한 파악에는 어려움이 수반된다.

붓다의 가계에 관해서 언급되어 있는 전적으로는 율장관련 자료가 2종류이고, 불전관련 자료는 3종류이며, 불전과 관계있는 기타 자료가 8종류로 도합 13종이 존재하고 있다. 이 중에서 먼저 율장관련 자료와 불전관련 자료들에 관한 측면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율장관련 자료]

NO	典籍	祖父	4男, 혹은 4男과 女息	8子, 혹은 8자와 女息
1	①『彌沙塞部和 醯五分律』, 卷 156)	尼休羅	淨飯	菩薩 難陀
			白飯	阿難

5) 『佛光大辭典』 등에 있어서의 목록에도 이는 ‘8子’로 되어 있다.

				調達
			斛飯	摩訶男 / 釋摩男(卷3) ⁷⁾ 阿那律 / 阿那律(卷3)
			甘露飯	婆婆 拔提
			淨飯	太子 難陀
2	②『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破僧事』, 卷2 ⁸⁾	師子頰王	白飯	恒星 賢善
			斛飯	大名 / 無滅(卷9) ⁹⁾ 阿那律 / 大名(卷9)
			甘露飯	慶喜 / 提婆達多(卷14) ¹⁰⁾ 天授 / 阿難(卷14)
			清淨(女息)	善悟
			純白(女息)	有鬘
			純斛(女息)	勝力
			甘露(女息)	大力

[불전관련 자료]

NO	典籍	祖父	4男, 혹은 4男과 女息	8子, 혹은 8子와 女息
1	③『佛本行集經』, 卷5 ¹¹⁾	師子頰	闍頭檀王(隋言淨飯)	太子 難陀
			輸拘盧檀那(隋言白飯)	難提迦 婆提唎迦
			途盧檀那(隋言斛飯)	阿難多 提婆達多
			阿彌都檀那(隋言甘露飯)	阿尼盧豆 / 摩訶那摩(卷58) ¹²⁾ 摩訶那摩 / 摩尼婁陀(卷

6) 『五分律』 15, 「第三分初受戒法上」(『大正藏』 22, 101b).

7) 『五分律』 3, 「第一分之二第」(『大正藏』 22, 16c), “時釋摩男。語阿那律言。今諸貴族並皆出家修於梵行。我等兄弟如何獨不。我若出家汝知家事。汝若捨家我當斷理。阿那律言。願兄出家我知家事”

8) 義淨 譯,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破僧事』 2, (『大正藏』 24, 105a).

9) 『破僧事』 9, (『大正藏』 24, 144b), “時斛飯王有其二子。一名無滅。二名大名”

10) 『破僧事』 14, (『大正藏』 24, 168b), “我弟阿難陀”

				58)
			阿彌多質多[口*邏](隋言甘露味-女息)	底沙
2	④『佛說衆許摩訶帝經』, 卷2 ¹³⁾	星賀賀努王	淨飯王	悉達多
				難陀
				蘇鉢囉(女息)
			白飯王	娑帝疏嚕
				娑捺哩賀
				鉢怛囉摩黎(女息)
			斛飯王	摩賀曩麼 / 阿爾樓駄(卷13) ¹⁴⁾
				阿爾樓駄 / 摩賀曩麼(卷13)
				跋捺黎(女息)
			甘露飯王	阿難陀
				提婆達多
				細嚩羅(女息)
3	⑤『佛說十二遊經』, 全1卷 ¹⁵⁾		白淨王	悉達
				難陀
			甘露淨王	調達
				阿難
			穀淨王	釋摩納
				阿那律
			設淨王	釋迦王
				釋少王

이상의 5종 전적을 통해서 우리는 『十二遊經』을 제외한 4남에 관한 기록

- 11) 『佛本行集經』 5, 「賢劫王種品下」(『大正藏』 3, 675c); 『佛本行集經』 11, 「姨母養育品第十」(『大正藏』 3, 701c).
- 12) 『佛本行集經』 58, 「婆提唎迦等因緣品中」(『大正藏』 3, 920c), “摩訶那摩作是念已。便即詣向摩尼婁陀釋童子邊。到已告言。摩尼婁陀。我等釋種有勢力者。悉各家別一人出家。我等家內。無出家者。我今思惟。或汝出家。或我出家。爾時釋種摩尼婁陀啓白其兄摩訶那摩釋童子言。摩訶那摩。汝自出家。我不能去”
- 13) 法賢 譯, 『佛說衆許摩訶帝經』 2 (『大正藏』 3, 937c).
- 14) 『佛說衆許摩訶帝經』 13 (『大正藏』 3, 973c), “時斛飯王有二子。一名阿爾嚕駄。二名摩賀曩麼”
- 15) 迦留陀伽 譯, 『佛說十二遊經』 全1卷 (『大正藏』 4, 146c).

이 정반·백반·곡반·감로반으로 일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8자에 있어서는 그 위치가 대단히 혼란스러워서 붓다와 난타를 제외하고는 누가 누구의 자제이며, 형이고 아우인지 위치를 비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破僧事』·『佛本行集經』·『衆許摩訶帝經』의 세 전적에서는 같은 전적 안에서도 권수가 달라지게 될 경우 8자의 일부 순서가 바뀌는 양상마저도 나타나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특히 『破僧伽』에서 더욱 심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破僧事』의 성립이 다양한 층차의 자료들을 종합하게 되면서 파생된 문제로 사료된다.

이상을 통해서 우리는 4남의 순서에 있어서는 대체적인 일치가 존재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으나, 8자에 관해서는 계통성의 확보에 대단히 난해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

2. 4남 8자에 대한 기타 자료의 정리

다음으로 불전과 관계있는 기타 자료들에 관한 측면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불전과 관계있는 기타 자료]

NO	典籍	祖父	4男, 혹은 4男과 女息	8子, 혹은 8자와 女息
1	⑥『起世經』, 卷 1016)	師子頰王	淨飯	悉達多 難陀
			白飯	帝沙 難提迦
			斛飯	阿泥婁駄 跋提梨迦
			甘露飯	阿難陀 提婆達多
			甘露(女息)	世婆羅

2	⑦『起世因本經』, 卷10 ¹⁷⁾	師子頰	淨飯	悉達多
				難陀
			白飯	帝沙童
				難提迦
			斛飯	阿泥婁駄
跋提梨迦				
甘露飯	阿難陀			
不死(女息)	提婆達多			
3	⑧『大智度論』, 卷3 ¹⁸⁾	師子頰	淨飯	佛
				難陀
			白飯	跋提
				提沙
			斛飯	提婆達多
阿難				
甘露飯	摩訶男			
甘露味(女息)	阿泥盧豆			
4	⑨『彰所知論』, 卷上 ¹⁹⁾	師子頰王	淨飯	婆伽梵
				難陀
			白飯	帝沙調達
				難提迦
			斛飯	阿尼婁駄
跋提梨迦				
甘露飯	阿難			
提婆達多				
5	⑩『釋迦譜』, 卷1 ²⁰⁾	尸休羅王	淨飯	菩薩
				難陀
			白飯	阿難
				調達
			斛飯	摩訶男
阿那律				
甘露飯	婆婆			
拔提				
6	⑪『釋迦氏譜』 全1卷 ²¹⁾	師子頰王	淨飯	悉達
				難陀
白飯	調達			
	阿難			

			斛飯	摩訶男 阿那律
			甘露飯	娑婆 跋提 甘露味(女息)
7	⑫『佛祖統紀』, 卷1 ²²⁾	師子頰王	飯王(諸經或云白淨)	悉達太子 難陀
			白飯	調達(諸經或云提婆達多) 阿難陀
				斛飯
			甘露飯	
8	⑬『釋氏稽古略』, 卷1 ²³⁾	師子頰		淨飯王
			斛飯王	摩訶男 阿那律
				甘露飯王
			白飯王	

- 16) 闍那崛多 等譯, 『起世經』 10, 「最勝品第十二之餘」(『大正藏』 1, 364a·b).
- 17) 達摩笈多 譯, 『起世因本經』 10, 「最勝品下」(『大正藏』 1, 419b).
- 18) 龍樹 造, 鳩摩羅什 譯, 『大智度論』 3, 「共摩訶比丘僧釋論第六」(『大正藏』 25, 83b·c).
- 19) 發含思巴 造, 沙羅巴 譯, 『彰所知論』 上, 「情世界品第二」(『大正藏』 32, 231b).
- 20) 釋僧祐 撰, 『釋迦譜』 1, 「釋迦內外族姓名譜第七(出長阿含經)」(『大正藏』 50, 10a).
- 21) 釋道宣 撰, 『釋迦氏譜』 全1卷, (『大正藏』 50, 86c-87a).
- 22) 志磐 撰, 『佛祖統紀』 1, 「教主釋迦牟尼佛本紀第一之一明本跡」(『大正藏』 49, 139c-140a).
- 23) 覺岸 編, 『釋氏稽古略』 1, 「釋迦文佛宗派祖師授受圖略(本正宗記)」(『大正藏』 49, 739a).

이 중에서 『기세경』과 『기세인본경』은 불교적인 세계관(우주관)에 대해서 서술된 경전으로 두 경전은 상호 유사한 異譯적인 차이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경전이다.²⁴⁾ 이 경전들에는 세계관과 연관된 측면에서 인류의 기원에 관해서도 언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붓다의 가계와 연관시켜 최고의 우수한 혈통이라는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붓다의 가계가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석가보』와 『석가씨보』, 그리고 『불조통기』와 『석씨계고략』은 중국에서 붓다의 생애가 언급되어 있는 여러 전적들을 바탕으로 중국적인 역사의식의 관점에서 종합 정리를 시도하고 있는 전적이다. 그러므로 성립시기가 늦고 인도문화권과는 다른 중국문화권에서 제작된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붓다의 가계에 관해서는 前說의 자료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고, 또한 조각의 필연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참고할만한 나름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으므로 검토의 대상에 편입시켜 보았다.

이러한 불전과 관계있는 기타 자료의 검토에 있어서는 율장이나 불전 유의 전적검토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동일 전적 내에서 권수의 차이에 의해 8자의 일부 순서가 바뀌어 나타나는 양상과 같은 측면은 발견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일견 통일성으로도 파악될 수가 있는 측면은, 그러나 1-4까지는 단편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고, 5-8까지는 중국적인 관점에서 재정비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곧장 일관성의 확보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불전과 관계있는 기타 자료의 검토에 있어서도 『석씨계고략』을 제외하고는 4남에 관해서는 일률적인 형태가 발견되고 있음을 파악해 볼 수가 있으며, 이와 아울러 8자에 관해서는 심각한 혼란상이 나타나 보이고 있다고

24) 智昇 撰, 『開元釋教錄』 7, 「總括群經錄上之七」(『大正藏』 55, 551c) ; 圓照 撰, 『貞元新定釋教目錄』 10, 「總集群經錄上之十」(『大正藏』 55, 850a).

하겠다.

이상으로 붓다의 가계가 언급되어져 있는 총13종의 관련전적들의 검토를 통해서 우리는 4남의 순서에는 정반·백반·곡반·감로반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어 그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8자에 있어서는 붓다와 난타를 제외하고는 그 위치가 대단히 불분명함이 파악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8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붓다·난타, 제사·발제, 마하남·아나울, 제바달다·아난이 형제관계라는 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이 일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사와 발제의 형제 위치에 관해서도 분명함이 확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제사와 발제의 순서는 마하남과 아나울, 그리고 제바달다와 아난과 같이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지도론』과 『석씨계고략』에만 발제가 장자인 것으로 등장 할 뿐, 그 이외의 대다수를 점하는 11종의 문헌들에서는 제사가 장자인 것으로 나타나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 역시 4남의 경우에서와 같이 그 순서적인 측면에 당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마하남과 아나울, 그리고 제바달다와 아난의 경우에 있어서는 형제관계의 순서에 있어서는 심각한 혼란상이 나타나 보인다고 할 수가 있다. 또한 붓다와 난타를 제외한 6자에 있어서 정반왕을 제외한 3남과의 부자관계 역시 매우 불투명하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본 고찰에 있어서의 과제는 자연스럽게 마하남과 아나울, 그리고 제바달다와 아난의 형제 순서와 붓다와 난타를 제외한 6자의 정반왕을 제외한 3남과의 부자관계의 규명으로 옮겨가게 된다고 하겠다.

끝으로 붓다의 가계에 관한 4남 8자의 다소 정형화된 형식과 관련하여 남전의 자료들에서는 이에 관한 기록을 확인해 볼 수가 없는데, 이는 『大史』에서 제바달다와 아난을 아쇼다라의 동생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²⁵⁾과 같은 남

25) 申星賢, 「提婆의 破僧事 問題」, 『佛敎學報』 제33호(1996), 164쪽; 渡邊照宏, 『新

전 특유의 시각에 의해서 관점을 달리하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다. 즉, 4남 8자의 형식은 북전에서는 보편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양상이지만, 이는 남전과는 관점이 다른 층차에 입각한 소산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²⁶⁾ 이로 인하여 4남 8자에 관한 석가족의 가계에 관한 측면은 북전자료들에 제한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고찰 역시도 북전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III. 제바달다와 아난의 형제관계

붓다의 가계가 언급되어 있는 13종의 문헌들은 그 정형화의 특성상 고층의 자료로 이해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13종의 문헌에는 신뢰성을 높게 확보할만한 문헌 역시 그 비중이 약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장이나 아함 등의 단편적인 전승들 중에서 4남 8자와 관련된 기록들을 적출하여 이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함으로써 혼란상에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해 볼 수가 있게 된다. 즉, 13종의 문헌에서 보이는 혼란상의 결과에 대한 보충이 율장이나 아함 등의 단편적 기록들의 검토를 통해서 보완

釋尊傳』(東京: ちくま學藝文庫, 2005), 410쪽.

26) 4남 8자의 구조를 완비하고 있지 못한 남전의 문제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제바달다가 야쇼다라의 동생이 될 경우 불전에 있어서의 ‘掬術爭婚’의 구조가 성립될 수 없게 된다는 점. 둘째, 붓다의 귀향과 석가족의 출가가 기록되어 있는 율장 등의 내용에 제바달다와 아난이 포함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셋째, 破僧事와 관련하여 구가리·가류라제사·건타달표·삼문달다의 석가족 출신 破僧伽 핵심동조자 4인의 제바달다의 지지에 관한 해법제시에 있어서 설득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점. 이와 같은 이유 등에 의거하여 ‘4남 8자의 구조’가 불전에서 율장 관련 자료 등에 이르기까지 보다 폭넓은 보편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다. 또한 이외에도 『대당서역기』 권7에는 “阿難陀者如來之從父弟也(『大正藏』 51, 909c)”라고 기록되어 있어 현장이 순례하던 무렵의 인도에서도 아난을 붓다의 사촌으로 본 것이 아난가하고 사료된다.

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13종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제바달다와 아난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바달다를 장자로 기록하고 있는 전적	②·⑤·⑧·⑪·⑫·⑬	총6전적
아난을 장자로 기록하고 있는 전적	①·②·③·④·⑥·⑦·⑨·⑩	총8전적

『破僧事』 안에는 장자와 차자에 관한 견해가 공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양쪽에 배속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위와 같은 6:8의 비율이 나타나 보여 아난이 장자일 수 있는 개연성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차이만을 통해서 제바달다와 아난의 형제관계에 관한 명확한 측면을 확보해 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1. 제바달다가 장자라는 내용적 전적

제바달다와 아난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단편적 자료들로는 대표적으로 破僧事와 관련된 기록들이 다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적들은 율장을 중심으로 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전적적인 신뢰도는 13종의 문헌에 비해서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헌들에는 한결같이 제바달다를 장자로 묘사하고 있어 주목되는 면이 있다.

破僧事와 관련되어 제바달다를 장자로 묘사하고 있는 문헌들에 관한 측면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NO	전 적	내 용
1	『十誦律』	권36 ²⁷⁾ : 조달은 붓다와 여러 비구들에게 신통 얻는 법을 물어서 거절당하자, 자신의 친동생인 아난에게 물어서 성취함.
2	『根本說一切有部』	권14 ²⁸⁾ : 제바달다가 붓다와 여러 비구들에게 신통 얻는 법

	毘奈耶』	을 물어서 거절당하자, 동생 아난의 和尚인 十力迦葉波에게 물어서 성취함.
3	『鼻奈耶』	권229) : 조달은 붓다와 여러 비구들에게 신통 얻는 법을 물어서 거절당하자, 자신의 친동생인 아난에게 물어서 성취함. 권730) : 아난이 조달의 동생이라는 注文이 있음.
4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破僧事』	권1331) : 제바달다가 붓다와 여러 비구들에게 신통 얻는 법을 물어서 거절당하자, 동생 아난의 화상인 十力迦葉에게 물어서 성취함.
5	『增壹阿含經』	권1532) : 제바달다는 아난의 출가를 지시하고, 아난은 형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함.
6	『出曜經』	권1433) : 조달은 붓다와 여러 비구들에게 신통 얻는 법을 물어서 거절당하자, 자신의 친동생인 아난에게 물어서 성취함.
7	『佛本行經』	권634) : 제바달다가 산채로 지옥에 빠지면서 붓다에게 귀의하며, 아난을 여진 동생이라 칭함.
8	『大智度論』	권1435) : 제바달다는 붓다와 여러 비구들에게 신통 얻는 법을 물어서 거절당하자, 자신의 친동생인 아난에게 물어서 성취함.

- 27) 弗若多羅·羅什 譯, 『十誦律』 36, 「雜誦第一(調達事上)」(『大正藏』 23, 257b), “爾時調達作是念。阿難是我弟。佛第一經中說。諸多聞弟子中阿難最勝第一。我何不往詣其所問神通道”
- 28) 義淨 譯,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 14, 「破僧違諫學處第十」(『大正藏』 23, 700c), “是時具壽十力迦攝波。在王舍城鷹窟中住。時提婆達多便生此念。十力迦攝波性無詔誑所言眞實。是我家弟阿難陀鄒波馱耶”
- 29) 竺佛念 譯, 『鼻奈耶』 2(『大正藏』 24, 859b), “復作是念。此阿難者是我小弟。世尊亦說。於聲聞中多聞第一。當往問神足道。必向我說神足道”
- 30) 『鼻奈耶』 7, 「波逸提法之一」(『大正藏』 24, 882b), “(調達婆兒阿難妹也)”
- 31) 『破僧事』 13(『大正藏』 24, 168b), “復念。如是何有能教我聖道神通。當時十力迦攝波。在王舍城先尼迦窟中。我詣彼處。彼上座直心無詔。及我弟阿難陀。親教彼十力上座。能教我聖道神通”
- 32) 瞿曇僧伽提婆 譯, 『增壹阿含經』 15, 「高幢品第二十四之二」(『大正藏』 2, 623c), “是時。提婆達兜釋種語阿難釋言。眞淨王今日有教。諸有兄弟二人。當分一人作道。汝今出家學道。我當在家修治家業。是時。阿難釋歡喜踊躍。報言。如兄來教”
- 33) 竺佛念 譯, 『出曜經』 14, 「利養品第十四」(『大正藏』 4, 687c), “調達比丘內自思惟。吾今在在處處學神足道。人皆不肯教我。吾自有弟。名曰阿難。多聞博學衆

이상의 전적들은 破僧事와 관련되어 주로 제바달다의 신통획득 부분에서 나타나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 볼 수가 있다. 불전 중에서는 『출요경』이 있어서 주목되는데, 『출요경』은 분류상으로는 불전 유에 배속되지만 『法句經』의 체제를 따르고 있는 경전으로 고층의 자료를 반영하고 있는, 불전 중에서는 신뢰도가 대단히 높은 전적이다.³⁶⁾

破僧伽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에서 제바달다가 일관되게 아난의 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13종의 문헌에서 살펴지고 있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破僧伽와 관련하여 제바달다와 아난의 관계를 타나내고 있는 전적들과 그 구체적인 상황의 특성상 이의 신뢰도가 13종에 비해서 더 높게 살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제바달다가 아난의 형일 개연성에 더 높은 타당성을 부여할 수가 있게 된다.

2. 제바달다가 장자라는 이치적 측면

석가족의 가계를 언급하고 있는 13종의 전적에는 아난이 제바달다의 형일 개연성이 나타나 있는 반면, 破僧事와 관련된 보다 실질적인 문헌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제바달다가 형이라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혼란이 있기는 하지만, 제바달다가

德具足。大慈四等無所不覆。明古如今三世通達。吾今當往問神足道。設授我者當善修行”

34) 釋寶雲 譯, 『佛本行經』 6, 「調達入地獄品第二十七」(『大正藏』 4, 100b), “舍利弗目連 迦葉阿那律 幸趣遭此等 唯弟賢阿難 骨肉族不遠 如何便相捨 兄弟相憐苦 衆僧亦復爾”

35) 『大智度論』 14, 「釋初品中屬提波羅蜜義第二十四」(『大正藏』 25, 164c), “其後爲供養利故來至佛所。求學神通。佛告橋曇。汝觀五陰無常可以得道。亦得神通。而不爲說取通之法。出求舍利弗目連連乃至五百阿羅漢。皆不爲說言。汝當觀五陰無常。可以得道可以得通。不得所求涕泣不樂。到阿難所求學神通。是時阿難未得他心智。敬其兄故如佛所言以授提婆達多”

36) 譯經委員會 譯, 『解題』, 『出曜經』(서울: 東國譯經院, 2003), 16-19쪽.

장자일 개연성이 더 크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시사 받을 수가 있게 된다. 그렇지만, 아난을 장자라고 언급하고 있는 전적들도 다수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제바달다가 장자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논리적인 타당성에 대한 검토 진행되어야 하는 필연성이 존재한다고 하겠다.

제바달다를 장자로 볼 수 있는 논리적 근거들은 여러 전승들에 의해서 유추가 가능한데, 이는 크게 두 가지의 측면을 통해 정리가 가능하다.

1) 아난의 나이문제

붓다 성도 후 6년 뒤에 카필라의 귀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석가족의 출가에는 대표적인 석가족의 귀족으로서 발제·아나울·제바달다·아난을 위시하여 『시분율』 권4에는 8인,³⁷⁾ 『오분율』 권3에는 7인,³⁸⁾ 『빨리울』 7破僧耄度에서는 6인³⁹⁾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어린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바로 아난이다.

아난의 나이에 대해서 『중허마하제경』 권6과⁴⁰⁾ 『破僧事』 권13에는⁴¹⁾ 아난이 붓다 성도시에 출생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이는 붓다의 귀향시

37) 『四分律』 4, 「十三僧殘法之三」(『大正藏』 22, 591a-b).

38) 『五分律』 3, 「第一分之二第」(『大正藏』 22, 17a-b).

39) 『빨리울(Vinaya)』, 「cullavagga」, 7破僧耄度, 182-183쪽.

40) 『佛說衆許摩訶帝經』 6(『大正藏』 3, 950c), “爾時魔衆即皆退散。復告淨飯王曰。悉達多太子。於金剛座上而得無常。王既聞已與諸眷屬悲啼懊惱迷悶倒地。時有天人告淨飯王。太子已成無上菩提。王聞是語心大歡喜。及秦王云。甘露飯王生其一子。耶輸陀羅亦生一子。王諸眷屬皆大踊躍”

41) 『破僧事』 13(『大正藏』 24, 105a), “爾時世尊在菩提樹下。降伏三十六俱胝魔軍。證得無上正遍知覺。時魔即往劫比羅城於虛空中。告淨飯王及諸宮人群臣百姓曰。沙門喬答摩今夜已死。時淨飯王聞之。心懷懊惱悶絕擗地。及諸宮人群臣百姓亦皆如是悲泣懊惱。時淨居天觀察下方。乃見斯事即下空中。告迦比羅城國王人衆曰。喬答摩不死。今在菩提樹下。證得無上正遍知道。時淨飯王及宮人國臣。忽聞此言踊躍歡喜。當此之時。甘露飯王誕生一子。以諸衆人歡喜日生故。因號此兒。名曰阿難陀”

점에서 아난이 다른 석가족들과 함께 비구로 출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즉, 이는 아난을 붓다 교법의 계승자로 밀접하게 연결시키려는 상징적 의도에 의한 소산 정도로만 파악해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지 않은가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승을 통해서 우리는 아난이 실제로 함께 출가하게 되는 다른 석가족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렸을 개연성은 확보해 볼 수가 있게 된다.⁴²⁾

또한 불전에 언급되는 붓다의 출가이전에 다른 석가족들과 무예 등을 겨루는 대목에 있어서도 제바달다는 언제나 등장하고 있는 반면,⁴³⁾ 아난은 『불본행집경』 권13과⁴⁴⁾ 『방광대장엄경』 권4에⁴⁵⁾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출가 이전의 경쟁 역시도 붓다와 제바달다·아난의 나이 차이를 고려한다면 사실 이기는 어려운 내용이지만, 제바달다와 난타는 언제나 등장하고 있는 반면 아난은 등장이 드물다는 것은 분명 이들의 나이 차이를 상징적으로 암시해 주고 있는 측면으로 사료될 수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등장에 있어서도 아난은 제바달다에게 능력 면에서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능력적 차이에 관한 부분은 붓다·난타·제바달다·아난의 4인에 대한 태생적인 비범성이 언급되어 있는 『십이유경』 全1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가 있는 측면이다.⁴⁶⁾ 물론 능력의 우월이 곧 나이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42) 平川彰은 붓다와 아난의 나이 차이를 20-30년 정도로 보고 있다(『原始佛教とアヒグルマ佛教』, 東京: 春秋社, 1991, 151쪽).

43) 『破僧事』 3(『大正藏』 24, 111b); 求那跋陀羅 譯, 『過去現在因果經』 2(『大正藏』 3, 628b-a); 『佛說衆許摩訶帝經』 4(『大正藏』 3, 942b-c); 玄奘 著, 辯機 撰, 『大唐西域記』 6, 『室羅伐悉底國』(『大正藏』 51, 901a); 『佛本行集經』 12-13, 『捨術爭婚品第十三上 - 常飾納妃品第十四上』(『大正藏』 3, 708b-714c); 地婆訶羅 譯, 『方廣大莊嚴經』 4, 『現藝品第十二』(『大正藏』 3, 562b-564c); 竺法護 譯, 『佛說普曜經』 3, 『王爲太子求妃品第九 - 試藝品第十』(『大正藏』 3, 500c-502a); 竺大力·康孟詳 譯, 『修行本起經』 上, 『試藝品第三』(『大正藏』 3, 465b-466a).

44) 『佛本行集經』 13, 『捨術爭婚品下』(『大正藏』 3, 711a).

45) 『方廣大莊嚴經』 4, 『現藝品第十二』(『大正藏』 3, 564b).

46) 『佛說十二遊經』 全1卷, (『大正藏』 4, 146c), “調達以四月七日生。佛以四月八日

고 할 수도 있지만, 형제간을 언급함에 있어서 능력의 차이에 관한 내용은 나이와 직결해서 이해될 수 있는 내적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측면 역시도 주목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이 외에도 아난이 붓다와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인물이라는 점은 『중아함경』의 「侍者經」이나,⁴⁷⁾ 붓다 사후 아난이 서방을 교화하다가⁴⁸⁾ 바이살리와 마가다의 중간 갠지스 강에서 열반에 들었다는 기록을⁴⁹⁾ 통해서도 간접적인 확인이 가능한 바가 있다.

이에 반해서 제바달다와 같은 경우는 출가 후 사리불·목건련·아나울·난제·금비라와 가까이 지냈다는 기록이 『비나야』 권2에 수록되어 있다.⁵⁰⁾ 이는 제바달다가 아난과 같이 어린 인물은 아니었을 개연성을 확보케 해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2) 대가섭의 아난에 대한 힐난

붓다의 열반 이후 아난과 대가섭 간에는 다소의 반목과 갈등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⁵¹⁾ 이와 관련하여 대가섭이 아난을 힐난하는 부분이 1차 결집과 관련된 전승에 기록되어 있다. 이는 『사분율』 권54에는 7조항,⁵²⁾ 『오

生。佛弟難陀四月九日生。阿難以四月十日生。調達身長丈五四寸。佛身長丈六尺。難陀身長丈五四寸。阿難身長丈五三寸”

47) 瞿曇僧伽提婆 譯, 『中阿含經』 8, 「(三三)未曾有法品侍者經第二(初一日誦)」(『大正藏』 1, 471c-475a).

48) 히라카와 아키라, 『印度佛教의 歷史上』, 이호근 옮김(서울: 民族社, 1994), 109쪽; 申星賢, 「初期佛教 教團에서 迦葉과 阿難의 關係」, 『佛敎學報』 제36호(1999), 256쪽.

49) 『大唐西域記』 7, 「吠舍釐國」(『大正藏』 51, 909c).

50) 『鼻奈耶』 2, (『大正藏』 24, 857c), “舍利弗。目捷連。阿那律。難提。金鞞羅比丘等共侶”

51) 히로사치야 著, 강기희 譯, 『小乘大乘』(서울: 民族社, 1990), 50-60쪽; 「初期佛教 教團에서 迦葉과 阿難의 關係」, 『佛敎學報』 제36호(1999), 260-266쪽.

52) 『四分律』 54, 「集法毘尼五百人」(『大正藏』 22, 967b-968a).

분율』 권30에는 6조항,⁵³⁾ 『십송율』 권60에서는 6조항이 발견되는데,⁵⁴⁾ 이는 아난의 행동에 관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언급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⁵⁵⁾ 그런데 여기에서 제바달다의 破僧事에 관한 내용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破僧伽가 교단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본다면, 제바달다와 형제관계에 있는 아난에게 이 부분의 힐난은 매우 유효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하고 있는 대가섭이 이에 대해서만은 전혀 이렇다 할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현존하는 파승와 관련된 율장의 기록들에는 아난이 破僧伽와 관련하여 이를 제재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렇다 할 만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섭이 이를 힐난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아난이 破僧伽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이에 대한 교단의 보편적인 인식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와 연관해서 본 고찰에 있어 추론 가능한 부분이 바로 아난이 제바달다의 동생이었기 때문이라는 측면이다. 즉, 아난이 제바달다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제바달다의 부당성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재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이해가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빨리율』 7破僧耨度에는 제바달다가 破僧伽에 앞서 탁발을 나가고 있던 아난에게만 破僧伽를 단행할 것에 대해서 먼저 귀뜸해주는 대목이 있다.⁵⁶⁾ 그런데 아

53) 『五分律』 30, 「第五分之九五百集法」(『大正藏』 22, 191b·c).

54) 『十誦律』 60, 「五百比丘結集三藏法品第一」(『大正藏』 23, 449b·c).

55) 『摩訶僧祇律』에서는 阿難을 힐난하는 인물이 大迦葉이 아닌 優波離로 등장하고 있으며, 또한 阿難은 총7조항 중에서 2가지(① 여인의 出家, ② 붓다께 常住를 권하지 않음에 대한 것)를 제외한 나머지는 용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陀跋陀羅·法顯 譯, 『摩訶僧祇律』 32, 「明難跋渠法之十」, 『大正藏』 22, 492a·b).

『빨리율』에서는 阿難을 힐난하는 인물이 大迦葉이 아닌 결집에 참석한 장로들로 되어 있으며, 조항 수는 5이다. 『빨리율(Vinaya)』, 「cullavagga」, 11五百耨度, 287-289쪽.

난은 이를 듣고도 그러한 잘못에 대한 충고 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는 아난이 제바달다에 비해서 손이랬사람일 수 있는 한 방증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측면들에 의해서 대가섭 역시 아난에 대한 힐난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이상의 아난의 나이문제와 가섭의 힐난과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 아난이 제바달다의 동생이었을 개연성에 무게중심을 실어 줄 수 있는 이치적인 측면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破僧事와 관련된 전적적인 측면들과 더불어 13종에서 나타나 보이는 이견을 수정하여 제바달다가 아난의 형이라는 견해를 전체적으로 확립해 볼 수가 있게 된다고 하겠다.

IV. 마하남과 아나울의 형제관계

마하남과 아나울의 형제관계 또한 제바달다와 아난의 경우에서처럼까지는 아니지만, 다소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어 문제의 판단에 어려움을 준다.

13종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제바달다와 아난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하남을 장자로 기록하고 있는 전적	①·②·③·④·⑤·⑧·⑩·⑪·⑫·⑬	총10전적
아나울 장자로 기록하고 있는 전적	②·③·④·⑥·⑦·⑨	총6전적

마하남과 아나울의 형제관계에 있어서는 13종의 검토에 있어서도 장차와 차자의 내용이 동시에 발견되는 『파승사』·『불본행집경』·『중허마하제경』을 양쪽에 모두 배속할 경우 전체적으로 10:6의 비율로 마하남이 장자일 개연성

56) 『팔리울(Vinaya)』, 「cullavagga」, 7破僧羯度, 198쪽.

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마하남이 장자일 개연성

붓다의 카필라 귀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석가족의 출가는 불교교단의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며, 그로써 다수의 율장들에 이와 관련된 기록들이 잔존하고 있다.⁵⁷⁾ 또한 이러한 기록의 중심에는 다른 경우들과는 달리 아나올이 부각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의 내용적인 시작은 아나올이 동감으로서⁵⁸⁾ 친근한 관계에 있던 석가족의 Rāja 발제의⁵⁹⁾ 출가를 권하고, 결국 이로 인하여 석가족의 귀족들이 출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아나올은 석가족의 귀족 출가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도화선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이로 인하여 아나올에 관한 내용이 보다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이러한 과정 중에 마하남과 아나올의 형제관계에 관한 언급도 드러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석가족의 출가와 관련하여 아나올의 형제관계가 언급되어 있는 전적에 관한 측면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NO	전적	권수	아나올의 家系 위치
1	『四分律』	권4 ⁶⁰⁾	장자
2	『彌沙塞部和醯五分律』	권3 ⁶¹⁾	차자
3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破僧事』	권9 ⁶²⁾	장자
4	『佛本行集經』	권5 ⁶³⁾	차자

57) 『四分律』 4, 「十三僧殘法之三」(『大正藏』 22, 590b-591b) ; 『五分律』 3, 「第一分之二第二」(『大正藏』 22, 16c-17b); 『팔리울(Vinaya)』, 「cullavagga」, 7破僧耨度, 180-183쪽.

58) 『佛說衆許摩訶帝經』 13, (『大正藏』 3, 974a), “時阿彌嚕馱有一同年名曰賢王。最相知見”

59) 『팔리울(Vinaya)』, 「cullavagga」, 7破僧耨度, 181쪽, “tena kho pana samayena bhaddiyo sakyarāja sakyānaṃ rajjaṃ kāreti, anuruddhassa sakkassa sahaṃyo hoti.”

5	『佛說衆許摩訶帝經』	권1364)	장자
---	------------	--------	----

이 중 2 - 5에 관한 내용들은 13종의 전적들에 반영된 측면과 상호 일치하는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추가되고 있는 부분은 『사분율』 권4 뿐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사분율』 권4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나올이 장자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장자와 차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측면만을 파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붓다의 가계를 전하는 13종과 아나올의 출가와 관련되는 이와 같은 전적들 이외에 아나올의 형제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다른 전적들은 전해지는 것이 마땅히 없다. 그러므로 문제의 해법적 접근은 필연적으로 내용적인 고찰을 통한 의미적 추론으로 전개되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13종의 석가족의 가계를 언급하고 있는 전적들은 말 그대로 가계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적 고찰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내용적 고찰은 아나올의 출가와 관련된 측면에서 모색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아나올의 출가와 관련된 인물적 측면은 마하남이 매우 듬직한 인물인 반면, 아나올은 복이 많은 다소 가벼운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⁶⁵⁾ 이는 마하남이 사촌들의 출가후 석가족의 라자가 되어 붓다를 잘 받들어 존중하는 모습이나,⁶⁶⁾ 후일 외손자 뻘이⁶⁷⁾ 되는 비유리왕의 석가족 침공 때 동

60) 『四分律』 4, 「十三僧殘法之三」(『大正藏』 22, 590b), “時摩訶男釋子語阿那律言。今諸釋種豪族子孫盡以信堅固從世尊求出家而我一門都無出家者。兄可知家業。公私之事一以相付。弟欲出家。若不能者弟當持家業。兄可出家”

61) 『五分律』 3, 「第一分之二第」(『大正藏』 22, 16c).

62) 『破僧事』 9(『大正藏』 24, 144b).

63) 『佛本行集經』 58, 「婆提唎迦等因緣品中」(『大正藏』 3, 920c).

64) 『佛說衆許摩訶帝經』 13(『大正藏』 3, 973c).

65) 『빨리울(Vinaya)』, 「cullavagga」, 7破僧耨度, 180쪽.

66) 求那跋陀羅 譯, 『雜阿含經』 33, 「九二九·九三〇」(『大正藏』 2, 236c-237c).

족의 일부라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연못에 들어가서 자살하는 행동을 하는 것⁶⁸⁾ 등과 일관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아나올과 같은 경우에는 가업의 승계리는 번잡함 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하여 출가하게 된다는 것이나, 자신의 출가를 위해서 당시 라자였던 발제를 강권하여 끌어들이는 점, 그리고 출가 후에는 잠을 못 이겨 붓다에게 경책을 당하는 되는 것과 같은 다소 가벼운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 물론 성격적 측면이 장자와 차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마하남과 아나올의 전체적인 전적의 빈도수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나 보이는 마하남이 장자일 개연성에 무게를 부여할 수 있는 간접적 측면은 확보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2. 아난에 있어서의 왜곡과 아나올

석가족의 가계를 전하는 13종의 전적에는 제바달다와 아난의 관계에 있어서 아난을 장자로 묘사하고 있는 전적이 8:6으로 더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破僧伽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제바달다가 장자로 기록되어 있는 상호 모순되는 측면이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 즉, 13종의 전적들에서는 아난이 장자일 개연성이 더 컸다가 정작 실질적인 측면에 관한 검토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제바달다의 장자적인 면만이 나타나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석가족의 가계가 정비될 무렵에 승단에 의한 의도적인 왜곡의 개연성에 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제바달다와 아난의 왜곡은 석가족의 가계에 관한 승단의 인식과 유관한

67) 『四分律』 41, 「衣撻度之三」(『大正藏』 22, 861a), “時摩訶男釋子。是琉璃王外祖父”

68) 『四分律』 41, 「衣撻度之三」(『大正藏』 22, 860b-861a).

것으로 사료된다. 주지하다시피, 제바달다는 破僧伽의 주도적 인물로 붓다를 시해하려다가 실패하자,⁶⁹⁾ 5법의 唱說과 取籌를 통해⁷⁰⁾ 破法輪僧을 획책하게 된다.⁷¹⁾ 그리고 이로 인하여 붓다에 의해서 阿鼻地獄苦를 1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종교적 단죄를 입게 된 인물이다.⁷²⁾ 이에 반해서 아난은 붓다에게 친히 시자로 낙점된 인물로서 붓다를 25년간이나 시봉하며,⁷³⁾ 8만 4천(혹 8만) 법장을 진지하여⁷⁴⁾ 1차 결집에 있어서 법장의 송출자이자,⁷⁵⁾ 대가섭을 이어서 승단의 주장이 되고⁷⁶⁾ 사후에 아소카에게 가장 많은 보시를 받음⁷⁷⁾ 10대 제자 중 1인이다. 즉, 제바달다는 종교적 단죄를 입은 악인인 반면, 아

69) 『四分律』 4, 「十三僧殘法之三」(『大正藏』 22, 592b-593a); 『五分律』 3, 「第一分之二第」(『大正藏』 22, 19a-20a); 『팔리울(Vinaya)』, 「cullavagga」, 7破僧捷度, pp. 189-196; 『十誦律』 36, 「雜誦第一(調達事上)」(『大正藏』 23, 259a-262c).

70) 『四分律』 46, 「破僧捷度第十五」(『大正藏』 22, 909b); 『五分律』 25, 「第五分初破僧法」(『大正藏』 22, 164a-b); 『十誦律』 37, 「雜誦中調達事之二」(『大正藏』 23, 264b-265a); 『팔리울(Vinaya)』, 「cullavagga」, 7破僧捷度, 197-199쪽.

71) 사사키 시즈카 著, 「破僧定義의 轉換」, 『印度佛教의 變遷』(서울: 東國大學校 出版部, 2007), 144-145쪽.

72) 『四分律』 46, 「破僧捷度第十五」(『大正藏』 22, 909b-913b); 『五分律』 25, 「第五分初破僧法」(『大正藏』 22, 164b-166a); 『十誦律』 37, 「雜誦中調達事之二」(『大正藏』 23, 265a-266c); 『팔리울(Vinaya)』, 「cullavagga」, 7破僧捷度, 199-202쪽.

73) 『中阿含經』 8, 「(三三)未曾有法品侍者經第二(初一日誦)」(『大正藏』 1, 471c-475a); *Thera-gāthā*(長老偈), 「1039-1043」.

74) *Thera-gāthā*(長老偈), 「1024」.

75) 『四分律』 54, 「集法毘尼五百人」(『大正藏』 22, 966a-971c); 『五分律』 30, 「第五分之九五百集法」(『大正藏』 22, 190b-192a); 『十誦律』 60, 「五百比丘結集三藏法品第一」(『大正藏』 23, 445c-453b); 『摩訶僧祇律』 32, 「明雜跋渠法之十」(『大正藏』 22, 489c-493a); 『팔리울(Vinaya)』, 「cullavagga」, 11五百捷度, 284-293쪽.

76) 安法欽 譯, 『阿育王傳』 4, 「摩訶迦葉涅槃因緣」(『大正藏』 50, 114b), “尊者迦葉以法付囑阿難而作是言。長老阿難佛以法藏付囑於我。我今欲入涅槃以法付汝。汝善守護。阿難合掌答尊者言唯然受教。”; 『阿育王經』 6, 「佛記優波笈多因緣第六」(『大正藏』 50, 150a); 『大唐西域記』 7, 「吠舍釐國」(『大正藏』 51, 909c).

77) 僧伽婆羅 譯, 『阿育王經』 2, 「見優波笈多因緣品第二」(『大正藏』 50, 138c-139a).

난은 불교의 교단적인 완성에 있어서 지대한 공이 있는 대선지식인 것이다. 이와 같은 서로 상반된 측면에 인도전통의 형이 동생보다 우월하다는 관점이 한테 뒤섞이면서, 후일의 승단인식에 영향을 미쳐 제바달다와 아난의 형제관계에 왜곡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즉, 승단의 상반된 인식적 결과가 제바달다와 아난의 형제관계라는 대전제 속에서 작용하여 형제의 순서에 있어서 왜곡을 동반하게 되고, 그로써 형제관계에 있어서의 혼란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료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혼란적 측면은 제바달다와 아난의 경우에서 보다는 약하지만, 마하남과 아나올의 관계 속에서도 살펴진다고 할 수 있다. 마하남은 붓다를 깊이 신뢰한 석가족의 라자로서 제바달다와 같은 악인이 아닌 善人이다. 그러나 아나올은 10대 제자 중 1인으로서 붓다의 열반과 관련된 기록들에는 그의 두각이 크게 부각되어 있는⁷⁸⁾ 중요한 인물이다. 이로 인하여 마하남과 아나올의 형제관계 역시 승단 인식에 있어서 다수의 왜곡이 동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마하남이 善人이라는 측면은, 제바달다와 아난에게서와 같은 형제의 순서가 전도되는 정도의 심대한 왜곡으로까지의 진행에는 이르지 못하는 방어기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마하남과 아나올의 형제관계 왜곡에 있어서 13종의 석가족 가계에 관한 전적에 있어서 『과승사』·『불본행집경』·『중허마하제경』의 세 전적에서는 장자와 차자의 두 가지를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제바달다와 아난의 관계에 있어서 『破僧事』만이 두 가지를 동시에 기록하고 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마하남이 善人이라는 측면이 승단의 왜곡에 있어서는 더 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제바달다와 아난, 그리고 마하남과 아나올의 형제관계에 승단의 의도적인

78) 不載譯人附東晉錄, 『般泥洹經』上, (『大正藏』1, 188b-189b); 白法祖譯, 『佛般泥洹經』上, (『大正藏』1, 172c-173c); 釋法顯譯, 『大般涅槃經』下, (『大正藏』1, 205a-716c).

왜곡이 존재한다는 것은 또한 석가족의 가계를 언급하고 있는 13종의 문헌에서 아난을 장자로 기록하고 있는 전전들에서는 공히 아나울 역시 장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측면을 통해서도 논리적 정합성이 확보될 수가 있다. 즉, 아난을 장자로 기록하고 있는 8개의 문헌군 안에는 아나울을 장자로 기록하고 있는 6개의 문헌이 모두 다 섭수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간략히 도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NO	전적	'8子' 중 아난의 위치	'8子' 중 아나울의 위치
1	『彌沙塞部和醯五分律』	장자	차자
2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破僧事』	장자/차자	차자/장자
3	『佛本行集經』	장자	장자/차자
4	『佛說衆許摩訶帝經』	장자	차자/장자
5	『佛說十二遊經』	차자	차자
6	『起世經』	장자	장자
7	『起世因本經』	장자	장자
8	『大智度論』	차자	차자
9	『章所知論』	장자	장자
10	『釋迦譜』	장자	차자
11	『釋迦氏譜』	차자	차자
12	『佛祖統紀』	차자	차자
13	『釋氏稽古略』	차자	차자
合計	總13種	장자 8회/차자 6회	장자 6회/차자 10회

이는 석가족의 가계를 정리하던 시점에서의 후대의 승단인식 속에 장자와 차자에 관한 왜곡적 관점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바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동일한 전적들에서 제기되는 장자에 관한 주장이 단순히 우연적 결과로 치부되기에는 너무나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나울에 대한 왜곡적 측면이 아난에 비해서 적은데 비하여, 혼란상

은 더 크게 나타나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왜곡의 기준이 승단의 관점적인 무계비중과 관련이 있다는 추론을 확립케 해주는 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제사와 발제에 있어서는 왜곡이 적은 이유에 관해서도 납득되는 바가 있게 된다. 즉, 발제는 상대적으로 승단 내의 무계비중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발제에 대한 왜곡은 필연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V. 8자의 정리와 4남

제바달다와 아난, 그리고 마하남과 아나울의 형제관계 정리와 본래부터 큰 문제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제사와 발제에 관한 부분을 종합해 보게 되면, 석가족의 가계에 있어서 8자에 관한 형제관계는 모두 정리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8자의 4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반왕을 제외하고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초점은 정리된 8자와 4남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옮겨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1. 발제와 아나울의 위치

8자 중 붓다와 난타를 제외한 6자와 정반왕을 제외한 3남의 관계는 석가족의 가계를 전하는 13종의 문헌에서 역시 혼란스럽게 나타나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혼란한 양상을 도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NO	典籍	帝沙·跋提 父親의 순서 - 4男	帝沙·跋提 父親의 이름	摩訶男· 阿那律 父親의 순서 - 4男	摩訶男· 阿那律 父親의 이름	提婆達多· 阿難 父親의 순서 - 4男	提婆達多· 阿難 父親의 이름
----	----	----------------------------	--------------------	----------------------------------	--------------------------	----------------------------------	--------------------------

1	『彌沙塞部和醯五分律』	4	甘露飯	3	斛飯	2	白飯
2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破僧事』	2	白飯	3	斛飯	4	甘露飯
3	『佛本行集經』	2	白飯	4	甘露飯	3	斛飯
4	『佛說衆許摩訶帝經』	2	白飯	3	斛飯	4	甘露飯
5	『佛說十二遊經』	4	設淨	3	穀淨	2	甘露淨
6	『起世經』	2	白飯	3	斛飯	4	甘露飯
7	『起世因本經』	2	白飯	3	斛飯	4	甘露飯
8	『大智度論』	2	白飯	4	甘露飯	3	斛飯
9	『章所知論』	2	白飯	3	斛飯	4	甘露飯
10	『釋迦譜』	2	白飯	3	斛飯	2	白飯
11	『釋迦氏譜』	4	甘露飯	3	斛飯	2	白飯
12	『佛祖統紀』	4	甘露飯	3	斛飯	2	白飯
13	『釋氏稽古略』	3	甘露飯	2	斛飯	4	白飯
合計	總13種類	2男 8회/4男 4회/3男 1회	白飯(設淨 포함) 9회/ 甘露飯 4회	3男 10회/4男 2회/2男 1회	斛飯(穀淨 포함) 11회/ 甘露飯 2회	4男 6회/2男 5회/3男 2회	甘露飯(甘露淨 포함) 6회/ 白飯 5회/ 斛飯 2회

이 중 가장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제바달다와 아난의 부친에 관한 측면이며, 이에 비해서 제사와 발제, 마하남과 아나울의 부친에 관해서는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제사와 발제, 마하남과 아나울의 부친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제바달다와 아난의 부친 문제 역시 저절로 분명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큰 문제는 파생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2. 4남 8자의 정리

제사와 발제의 부친이 백반이고, 마하남과 아나올의 부친이 곡반이라는 13종의 문헌적 개연성은 타당한 측면이 확보될 수 있는 측면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붓다가 성도 후 6년인 본국으로 귀향한 시점에서 당시 석가족의 라자는 발제였다. 그로 인하여 석가족의 출가와 관련된 율장의 기록에서 발제는 跋提王, 혹은 賢王 내지 賢王釋種 등으로 불리우고 있는 것이다.⁷⁹⁾ 이는 또한 발제가 출가 후 우바리에게 예를 표하는 대목이나,⁸⁰⁾ 깨달음을 얻은 해탈의 경계에서 ‘快哉快哉(甚樂甚樂)’를 외쳤다가 해명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 보인다.⁸¹⁾ 그리고 이외에도 이는 붓다가 『증일아함경』의 「弟子品」에서 발제의 신분이 높은 것을⁸²⁾ 칭찬하는 것을 통해서도 단적인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발제가 라자였다는 것은, 마하남이 발제의 출가 후에야 라자가 되고, 아나올과 재바달다와 아난은 라자를 역임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발제의 부친이 정반왕의 바로 밑의 동생인 백반이었을 개연성을 높여준다. 물론 정반왕에게는 붓다 이외에도 이복동생인 난타가 있었지만, 붓다의 귀향 무렵 난타와 순다리의 결혼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⁸³⁾ 보아 난타는 붓다와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으로 나이에 의

79) 『五分律』 3, 「第一分之二第」(『大正藏』22, 17a); 『빨리울(Vinaya)』, 「cullavagga」, 7 破僧耨度, 181쪽; 『破僧事』 9 (『大正藏』 24, 145a); 『佛說衆許摩訶帝經』 13 (『大正藏』 3, 974b).

80) 優波離가 釋迦族들에 비해서 먼저 出家한 데 관한 내용은 『四分律』과 『五分律』에도 등장하지만, 釋迦族들이 먼저 出家한 優波離에게 出家 때 禮拜하는 대목은 후대의 『破僧事』나 『衆許摩訶帝經』에만 등장한다. 『破僧事』 9 (『大正藏』 24, 146a); 『佛說衆許摩訶帝經』 13, (『大正藏』 3, 974c-975a).

81) 『四分律』 4, 「十三僧殘法之三」(『大正藏』 22, 591b·c); 『五分律』 3, 「第一分之二第」(『大正藏』 22, 17a).

82) 『增壹阿含經』 3, 「弟子品第四-七」(『大正藏』 2, 558a), “我聲聞中第一比丘。豪族富貴。天性柔和。所謂釋王比丘是。”; 에피엔 라모트, 『印度佛教史1』, 浩眞 譯 (서울: 時空社, 2006), 60쪽.

83) 『新釋尊伝』(東京: ちくま學藝文庫, 2005), 306-307쪽; 『佛本行集經』 56 -57, 「難

해서 라자의 계승에서 밀려났을 개연성이 있다.

또한 발제의 형으로 등장하는 제사는 8자 중에는 가장 행적이 불분명한 인물인데, 『십이유경』 全1에서는 이를 釋迦王으로 기록하고 있어⁸⁴⁾ 제사 역시 잠시라도 라자를 역임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발제의 출가와 관련된 내용에는 동갑으로서⁸⁵⁾ 특히나 친밀했던 아나율이 발제에게 출가를 권하자 발제가 라자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자신은 인생을 즐기다가 가겠다고 주장을 피력하게 되고, 결국 아나율의 강권에 못 이겨 마침내 7일간만 유희하는 것으로 이견의 절충을 보게 된다.⁸⁶⁾ 이는 발제가 라자가 된 것이 오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발제의 전에 형인 제사가 라자였을 개연성도 보다 강하게 확보되어질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발제와 아나율이 동갑으로 나온다는 것은 마하남이 발제보다는 나이가 많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제가 라자가 되었다는 것은 발제의 부친이 마하남의 부친에 비해서 형이라는 한 방증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한다.

제사와 발제, 그리고 마하남과 아나율의 부친에 대한 순서가 정리되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제바달다와 아난에 관한 것뿐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제사와 발제가 백반의 소생이고, 마하남과 아나율이 곡반의 소생이라면 의당 제바달다와 아난은 감로반의 소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제바달다와 아난이 감로반의 소생일 것이라는 개연성은 제바달다와 아난이 라자를 역임한 기록이 없다는 것과⁸⁷⁾ 붓다와 아난과의 큰 폭의 나이 차이, 그리고 제바달다가

陀出家因緣品第五十七上 - 難陀因緣品下」(『大正藏』 3, 911b-918a).

84) 『佛說十二遊經』 全1卷(『大正藏』 4, 146c), “菩薩小叔名設淨王。有二子大子名釋迦王。小子名釋少王”

85) 『佛說衆許摩訶帝經』 13, (『大正藏』 3, 974a).

86) 『四分律』 4, 「十三僧殘法之三」(『大正藏』 22, 591a); 『팔리어(Vinaya)』, 「cullavagga」, 7 破僧捷度, 182쪽; 『佛本行集經』 58, 「婆提唎迦等品中」(『大正藏』 3, 922b).

붓다의 72 - 73세에 일으킨 것으로⁸⁸⁾ 추정되는 破僧事의 과정에서 붓다께 年老하시다는 이유를 들어 교단의 승계를 요청하는 대목을 들 수가 있다. 만일 이때 제바달다가 붓다와 상당한 나이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은 성립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역시도 제바달다와 붓다간의 나이 차이가 적지 않았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는 아난이 붓다보다 많이 어린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 상호 연결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타당성이 확보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즉, 제바달다와 아난은 감로반의 소생이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붓다와는 상당한 나이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라자를 역임하거나 할 수는 없었다고 하겠다.

VI. 결론

지금까지의 4남과 8자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우리는 4남 8자의 전체적인 순서를 파악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祖父	4男	8子(縮約·音寫·意譯的인 차이 등)
師子頰(尼休羅·)	淨飯	悉達多
		難陀

87) 제바달다가 라자를 역임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적인 측면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제바달다가 석가족의 라자가 되기 위해서 당시 라자였던 발제의 출가를 중용하는 내용을 통해서 한 방증 정도는 확보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破僧事』 9 (『大正藏』 24, 145a-145b); 『佛說衆許摩訶帝經』 13(『大正藏』 3, 974b).

88) 僧伽跋陀羅 譯, 『善見律毘婆沙』 2, (『大正藏』 24, 687a), “爾時阿闍世王。登王位八年佛涅槃。”; 장 부이슬리에 著, 이종인 譯, 『붓다』(서울: 時空社, 2004), 97 쪽.

星賀賀 努·尸休 羅	白飯	帝沙(提沙·婆沙·帝沙童·帝沙調達·婆婆·難提迦·娑帝疏嚕·恒星·釋迦王)
		跋提(拔提·婆提唎迦·婆捺哩賀·難提迦·賢善·釋少王)
	斛飯	摩訶男(釋摩納·摩訶那摩·摩賀曩麼·摩賀曩摩·跋提梨迦·大名)
		阿那律(阿尼盧豆·摩尼婁陀·阿儂樓駄·阿泥婁駄·阿尼婁駄·阿雀樓駄·無滅)
	甘露飯	提婆達多(調達·天授)
		阿難(慶喜)

이상을 통해서 우리는 붓다의 가계와 관련된 사항들과 석가족 귀족들의 출가와 이들이 접하고 있는 근본불교 내의 위치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해 볼 수 있는 배경을 확보해 볼 수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불전에서 부터 제기되는 석가족 내의 경쟁 구조에 대한 측면들에 있어서도 해법의 개연성을 보다 높게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불교는 물론 제바달다나 차익의 말처럼 석가족의 종교만은 아니다.⁸⁹⁾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10대 제자로 칭하여지는 인물들 중 5명이 석가족이며, 또한 2차 결집 때 등장하는 8명의 장로 가운데 6명은 아난의 제자였다.⁹⁰⁾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석가족의 영향은 실로 적지 않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근본불교의 이해에 있어서 ‘4남8자’에 대한 정리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필연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바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89) 『出曜經』 16, 「忿怒品第十五」(『大正藏』 4, 695c-696a), “爾時調達內興妒嫉。聞世尊語已倍生恚怒。如來今日讚歎舍利弗目連比丘。而更輕賤小弟。要當求便喪滅師徒使此國界衆生不睹其形不聞其聲。是時調達比丘。卽從坐起禮足退歸。”; 『善見律毘婆沙』 13 (『大正藏』 24, 769c), “汝等不應教我。我應教汝等。何以故。佛是我家佛。何以故。我與提陟將佛入山學道。不見諸長老一人侍從佛者。佛得道已而轉法輪。是故佛是我家佛。法亦是我家法。是故我應教諸長老。長老不應反教我”

90) 『印度佛敎의 歷史上』(서울: 民族社, 1994), 109쪽.

주제어

4男8子(4 Men 8 Sons), 釋迦族의 家系(Family Line of Sakyamuni), 提婆達多 (Devadatta), 阿難(Ānanda), 阿那律(Aniruddha·Anuruddha), 摩訶男(Mahānāma), 跋提(Bhadrika), 白飯(Suklodana·Sukkodana), 斛飯(Droṇodana), 甘露飯 (Amṛtodana·Amitodana)

Consideration on the Order of "4 Men 8 Sons"

Youm, Jung-Seop

When Buddha went back to Kapila after the attainment of Great Wisdom, many noble men of Buddha family left their home to be bonzes. At that time, the leading figures were the cousins of his paternal line. Among the figures, Bhadrīka was the Rāja of Sakyamuni family at that time, Aniruddha and Ānanda became two of Ten Great Disciples later. Devadatta was a problematic person, but gives us many insights on the first state of Buddhism.

In spite of their importance, the position of Buddha's cousins in Sakyamuni family is so confusing that we suffer some difficulty in its clear comprehension. Therefore, the close examination on the "8 sons" centering Buddha and Nanda as well as the "4 men" who were their fathers must be essential to understand Buddha and the fundamental Buddhism.

Through the examination of "4 men 8 sons", we can see more clearly the background concerning the Buddha's family and the conversion of Sakyamuni noble men as well as their position in the original Buddhism. Moreover, as it shows an aspect of competitive structure that arose from the early days of Buddha, it may suggest us a solution of such problem.

Of course, the Buddhism is not the religion of Sakyamuni family

only. In spite of it, the influence of Sakyamuni family to the original Buddhism and early Buddhism was really enormous. Therefore, the consideration on the "4 men and 8 sons" is indispensable in understanding the Buddhism.